

전통시장 가을축제 경기 활성화 '톡톡'

오는 20일까지 지역 27곳 즐길거리 가득 중기지방청 "인지도·매출 향상에 큰 효과"

"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니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 전통시장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 인지도·매출 향상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 한달 동안 27개 시장이 가을축제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4개 시장이 축제를 진행했으며, 13개 시장이 10월에도 흥겨운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지난달 26일에는 조대장미의 거리 상점가에서 '조대장미의 거리 상점가 고객감사! 가을청년문화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청년문화공연, 장기자랑, 플라마켓 등이 펼쳐졌고, 편리한 지불결제, 고객선호, 위생정결, 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 5대 핵심과제 다짐대회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1회 남광주시장 수산물 축제'에는 무려 3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노래자랑을 비롯해 지락까기, 장어 옮기기, 참치해체쇼 등 참신하고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참여한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28일에는 양동건어물시장에서 저렴한 건어물과 함께 맥주를 무료로 무한리필 해주는 '건맥축제'가 열렸으며, 같은날 굴비골 영광시장에서도 '구리골 영광시장 고객감사! 가을청년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팝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수석전시, 추억의 주먹밥 및 동등주 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했다.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 전통시장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 인지도·매출 향상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진행된 남광주시장 수산물 축제 모습. /중기지방청 제공

팝케스트라 공연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좋다"며 "알뜰하게 장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달에 이어 10월 전통시장 가을축제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강진중앙로상가의 문화공연 및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순천씨내물상가의 패션쇼, 순천웃장의 어린이사생대회 및 장보기 체험, 완도5일시장의 어린이그림 그리기 대회 등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가족단위로 체험이 가능한 행사가

많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전용사이트인 '시장애(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지방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인지도 및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남은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중기지방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인지도 및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남은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중기지방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인지도 및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남은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은 추가 대출"

제윤경 의원 "저신용자 등 결국 고금리 시장으로 재진입"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가량이 적어도 1건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퀴드림론·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따로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15.5%(25만4,582명)에 달했다. 추가 대출의 금액 비중을 보면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 9,719억원(39.6%)으로 가장 컸다.

바퀴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 2,026명 중 72.3%(1만6천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넘게 따로 대출을 받았다. 바퀴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니아딤채, 2019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디자인·사용·혁신성 인증

위니아딤채는 '2020년형 딤채 감자냉장고', 'IH압력밥솥 딤채 당질저감 30' 2개 제품이 '2019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2019일본 굿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의 IDEA, 독일의 IF 디자인, 레드닷(Reddot) 디자인과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로 손꼽힌다. 위니아딤채는 2020년형 감자냉장고 '딤채'와 IH압력밥솥인 '딤채당질저감 30'을 출품해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성, 혁신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들에게는 디자인 우수성을 인증하는 지마크(G-Mark)가 부여됐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맞춤형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전기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위니아딤채는 2020년형 감자냉장고 '딤채'와 IH압력밥솥인 '딤채당질저감 30'을 출품해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성, 혁신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본상을 수상했다. /길용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육군 제31사단은 최근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2019년 청년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중진공 광주본부 제공

중진공 광주본부, 청년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육군 제31사단은 최근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2019년 청년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청년장병 400여명과 고려오토론(주), ㈜조인트리, ㈜전일, ㈜시그넷이비 등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20개 사가 참여했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와 육군 제31사단은 지난해부터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컨설팅과 박람회를 개최해왔다. /길용현 기자

양기관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구인, 청년장병 취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종철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청년장병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와 단절이 아닌 능력과 열정,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고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지역내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경제 프리즘

2차 스케일업 금융사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6일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도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60개 중소기업에 약 30억원씩 총 1,9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1,600억원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및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증권사 국내 지점 1년새 73개 감소

증권사의 국내 지점이 1년 새 70개 이상 줄어 들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증권사 45곳의 국내 지점 수는 928개로, 1년 전보다 73개 감소했다.

증권사 국내 지점 수는 2011년 3월 말 1,567개로 정점을 찍고 감소해왔는데 갈수록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증권사별로는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의 지점 수가 97개로, 1년 전보다 63개(39.3%)나 줄었다.

신한금융투자의 지점 수는 93개로 변화가 없고 KB증권은 92개로 8개가 줄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각 79개, 유안타증권 66개, 삼성증권 52개, 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 각 49개, 한화투자증권 48개 등 순으로 지점 수가 많았다.

벤츠, 9월 국내 승용차 판매 3위

지난달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약진하며 현대차·기아차에 이어 3위 자리를 꿰찼다.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9월 국내 승용차 신차 판매는 11만8,895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8.9% 늘었다.

이 중 국내 완성차 5개사가 9만8,691대, 수입차 브랜드가 2만204대로, 각각 7.4%와 17.3% 증가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4만982대와 3만8,480대로 점유율이 66.9%에 달했다.

벤츠가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산 완성차를 제치고 판매 7,707대(6.5%)를 기록했다. 벤츠 판매는 작년 동월보다 296.7% 치솟으며 작년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금속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